



# 致 辭



존경하는 국회 노영민의원님, 박상돈의원님!  
그리고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이희평 회장님을 비롯한 전국 80만 전력기술인과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제11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국가의 핵심 에너지원인 전력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산업발전에 기여해 오신 전력기술인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전력기술 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전력기술인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난해 원화강세, 고유가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수출 3천억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온 국민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지만 특히, 우리 전력기술인들이 튼튼한 밑받침 역할을 해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력산업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6,500만kW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연간 정전시간이 10분대를 유지하는 등 양적·질적인 면에서 명실공히 전력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빛과 동력을 제공해 온 전력산업의 미래는 전력기술인들이 산업현장에서 기울이는 혁신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며, 여러분께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력기술인 여러분께 전력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력시설물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여러분께서는 강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지니고 안전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전력산업은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IT, 나노기술의 융·복합화 발전과 FTA를 통한 시장개방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0년 이후부터는 전력 수요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전력산업은 그동안 축적된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세계 전력시장으로의 진출을 지향해야 할 것이며, 전력기술인 여러분들이 해외 진출에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정부에서는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시·도지사가 직접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정부에서는 전력시설물의 품질향상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R&D 투자·안전교육의 확대, 그리고 설계 및 감리기준의 개선 등 관련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제11차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전력산업의 발전과 전력기술인 여러분의 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2월 28일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김 신 중**